

중소 건설업체 경영여건 최악, 자금지원프로그램 절실

- 97년 이후 중소건설사 평균매출액 42.4%p급감, 양극화 심화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이 공동조사하여 발간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1997년 54억원에서 2010년 현재 31억원으로 42.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같은 기간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6.3%에 그쳐 12개 업종 중 하위에서 3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p 감소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또한, 최근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공사 중 적격심사대상 공사의 평균입찰경쟁률이 359:1에 이르러 입찰에 참여해도 수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으로 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적격심사대상 공사를 1건만 수주한 중소기업이 91.3%, 2건만 수주한 업체가 7.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의 8.5%가 1년간 기성실적인 전혀 없는 무실적업체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권오현 박사는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악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오현 박사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건설업 종사자는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55.9%에 이르고, 건설업 전체 매출의 32.7%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와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공공발주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41.6%가 정체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약화되었다는 응답도 23.8%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공사관리능력 미흡이 지적되었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과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가 최우선과제로 지적되었고,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에 대응하여 주력분야의 전문화 추구 및 신사업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거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권오현 박사는 보고서를 통하여 중소기업체들은 현재 업체 수 과잉, 수주경쟁의 과열, 사업규모의 과소, 수익성의 부진 등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체들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권오현 박사는 최근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임을 감안,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급히 개발,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첨 부 : 1. 연구보고서 1부
 2. 연구보고서(PT자료) 1부. 끝.